한 정 원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여성노숙의 원인과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여성 상담보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송 순 영

여성노숙의 원인과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여성 상담보호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정 원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송 순 영

인 준 서

송순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약한 여성으로써 최악의 상황인 거리노숙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적 변화를 비롯하여 여러 이유로 노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여성노숙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힘없고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소외시하고 있는 여성노숙인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노숙인들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노숙의 현황과 여성노숙인의 특성은 무엇인가, 여성노숙의 노숙요인은 무엇인가, 여성노숙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어떠한 이유로 여성들이 노숙을 하게 되는지 밝히기 위해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여성노숙인 일일전용시설인 '우리들의 좋은집'의 초기상담 자료를 기초로 원인별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여성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여성노숙인 14명을 선정하여 사례별로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여성노숙인들을 통해 노숙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러한 노숙상황이 사회적 문제임을 밝히고자 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이 노숙을 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가정폭력이 많은 수를 차지했다. 가정폭력 이라하면 남편의 폭력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연구의 결과를 보면 남편의 폭력과 더불어 가정 내 모든 폭행, 폭언, 성폭력, 무시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가출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노숙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경제적 빈곤 즉, 돈이 없

음은 노숙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저임금이나 실업으로 인한 빈곤 때문에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성노숙인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강했지만 이러한 일자리 부족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숙을 하게 되었다하여도 그 이전에는 가정해체, 가정폭력, 사건사고 등 단일요인이 아닌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였다.

세 번째, 여성 노숙원인 중에 하나는 가족해체 및 단절로 나타났다. 가족해체라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취약한 가족의 구성과 더불어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약한 것도 노숙인의 삶과 관련이 깊었다. 예상치 못한 배우자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등의 가족해체는 여성을 무기력하게 만들뿐 아니라 무방비상태로 거리생활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네 번째, 여성들이 노숙을 하게 되는 원인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정신장애 및 질환에 대한 부분이다. 그들이 노숙을 하기 전에 질환이 있었는지 노숙을 시작하면서 질환을 앓게 되었는지 알기란 쉽지 않았지만 보통 과거부터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병원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심한 정신적 쇼크로 인해 질환을 얻어 노숙을 하게 된 여성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자녀동반 여성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아동에 대한 방임과 학대까지 야기시킴으로서 이는 무엇보다도 빠른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여성들이 갈 만한 쉼터와 병원이 없다. 혼자 힘으로 노숙 위기를 이겨낼 힘이 없는 여성이므로 사회적 지지와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노숙인들을 단지 노숙인 그 자체로 한정지을 수 없고 또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되기보다 사회적·여성적 문제로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적, 여성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그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

음과 같다.

먼저 예방차원에서의 여성노숙인 지원은 빈곤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개입, 지역사회 응급주거와 네트워크 구축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등의 포괄적인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기존여성, 노인, 정신장애 관련 서비스와 시설 인프라의 확충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웃리치와 드롭인 센터의 확충과 그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노숙원인이 다양한 만큼 그에 대한 대안도 다양하다. 여성노숙인들은 노숙 원인별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노숙원인의 다양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쉼터의 전문화·특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질환 등 정신적 문제를 가진 여성노숙인들에게는 요양시설, 병원의 건립, 확충 등 국가적 차원에서 갈 곳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 등 여성노숙인과 관련된 단계별일자리 창출과 확보 등이 시급하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긴급급여 확대와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일시보호의 복지서비스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 4
3.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 6

Ⅱ. 여성노숙의 원인과 노숙현황 ····· 11

1. 여성노숙인의 정의와 범위 ····· 11
 1) 여성노숙인의 정의 ····· 11
 2) 여성노숙의 범위 ····· 13

2. 여성노숙의 원인 ····· 14
 1) 정신장애와 알코올 중독 ····· 16
 2) 경제적 빈곤 ····· 17
 3) 가족과의 관계단절 및 해체 ····· 19
 4) 가정폭력 ····· 20

3. 여성노숙인의 일반적인 특성 ····· 22
4. 여성노숙인의 현황 ····· 26
(1) 좋은집 입소자 현황 ····· 26
(2) 여성쉼터 노숙인의 현황 ····· 32

Ⅲ. 드롭인 센터(drop-in center)이용자의 유형별 사례 ····· 34

1. 유형별 사례연구 ····· 34
(1) 폭력의 아픔 ····· 34
(2) 가난의 시련 ····· 39
(3) 가족과의 이별 ····· 42
(4) 정신장애를 갖은 여성의 고된 삶 ····· 45
(5) 힘든 삶의 불청객 ····· 46

Ⅳ. 여성노숙에 대한 예방책 및 서비스 ····· 49

1. 여성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 49
2. 여성노숙에 대한 예방 ····· 50
3. 서비스 보호대책인 아웃리치와 여성 드롭인센터(drop-in-center) ····· 52
1) 아웃리치의 정의 ····· 52

2) 중간역할의 여성 드롭인센터(drop-in-center)의 필요성과 역할 ···· 54
(1) 드롭인센터의 필요성 ···· 55
(2) 드롭인센터의 역할 ···· 55
(3) 기타 ···· 56

Ⅴ. 결론 ···· 57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9
<표 2> 연령대와 노숙경험 여부 ····· 27
<표 3> 가족형태와 이용경로 ····· 29
<표 4> 좋은집 이용 직전 주거와 노숙사유 ····· 30
<표 5> 좋은집 서비스 이용 현황 ····· 31
<표 6> 좋은집 신규이용자 조치 사항 ····· 32
<표 7> 서울시 여성쉼터수의 변화 ····· 32

그 림 목 차

<그림 1> 우리들의좋은집 이용자 노숙요인 ····· 15

Ⅰ. 서 론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노숙문제는 1997년 IMF경제침체이후 경제적 위기와 관련되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IMF이후 실직과 해고 등 경제적 파산으로 인한 노숙인들의 대거 출현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정부는 노숙인 문제를 인식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회노동시장 안으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일시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 대책의 초점을 두었으며 실직노숙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노숙인들의 수는 증가하였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여성노숙인은 소수이지만 남성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 또한 거리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004년 말 전국적으로 10여개의 쉼터에서 생활하는 여성은 300여명, 주요 역 등 거리에서 생활하는 여성은 20-30명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정부에서 발견한 수치에 불과하며, 숨어 있는 예비 여성노숙인의 수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실제로 2005년 3월2일 개소한 여성노숙인 전용일일시설[1]에는 3월-4월 두 달 동안 7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노숙상태에 있지만 발견되지 않은 여성이 많음을 보여준다.

특히, 1999년 이후 쉼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 의하면, 1999년 말, 서울지역 쉼터에

1)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여성노숙인 상담보호센터 '우리들의 좋은집'은 단신여성, 모자가정 등 위기여성들이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단기간 이용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쉼터에 젖응하지 못하고 거리에 장기간 머물고 있는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목욕, 세탁, 의류지원, 생필품지원, 상담, 기초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서 생활하는 전체노숙인은 4,600여명에서 2004년 말 2,975명으로 1,600여명이 줄었으나, 여성노숙인 수는 2000년 106명(2004. 1. 31 현재)에서 2005년 161명(2005. 1.31 현재)으로 60%가 증가하였다. 또한 매년 새로이 발생하는 신규 여성노숙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도에는 전체 신규발생 노숙인 6,130명 중, 여성이 271명으로 4.4%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2,431명 중, 530명으로 22%를 차지하여 수적으로 급증하였으며, 그 이후 2003, 2004년도에는 매년300명 선으로 전체 신규노숙의 14%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노숙인의 증가는 자녀를 동반한 모자가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아동을 포함한 20세 미만의 수도 2000년에는 연간 누적 인원이 400여명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69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서정화, 2005). 서울시청 노숙인 대책반에 의하면 현재 서울에 있는 노숙인의 숫자는 2006년 5월말 통계기준으로 3,185명이며 이중 2,000여명은 쉼터를 이용하고, 그 중10% 가량은 여성노숙인으로 조사되었다(뉴스웨이, 2006. 6. 27). 이렇듯 여성노숙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치로만 본다면 여성노숙인의 수는 남성노숙인의 수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이들의 존재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사회적으로 쉽게 인식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서울시, 정부 및 단체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노숙인을 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고 여성노숙인들은 자연스럽게 소외의 대상이 되었다.

남성노숙인의 노숙원인이 경기불황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실직형태라면 여성노숙의 경우는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주를 이룬다. 여성은 이 같은 원인으로 집을 나오게 되는데 이는 곧 가정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듯 여성이 거리에서 노숙을 한다는 것은 남성들의 노숙과는 원인이 다르며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여성노숙인의 경우, 남성노숙인과는 다르게 자녀를 동반하고 집을 나오는 경우가 많

은데 이는 여성복지차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거나 받았다하더라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결국 이러한 여성복지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은 거리나 여성노숙인 쉼터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여성노숙인들은 성폭력이라는 성의 노출 문제를 갖고 있다. 하루 먹고 하루 밤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은 몸을 담보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다. 이 의미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그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함께 있음을 통해)하루 묵을 곳을 확보한다는 것과 또 다른 측면은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성의식의 무지와 그 결과가 초래하는 문제점들은 여성문제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노숙인들의 현실을 볼 때, 그간의 노숙인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여성노숙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또한 이혼, 별거, 가출 등으로 이어지는 가정해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여성노숙을 심각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성 노숙인의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심각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에 대한 무관심은 많은 연구의 영역들 속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여성노숙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왔기 때문에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찾아보려 해도 그에 관련된 연구나 논문이 극히 드물고 IMF체계이후 급히 실시한 실태조사 및 연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요 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으나 또 다른 유형의 여성노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는 거의 없다. 이렇듯 여성노숙에 관한 선행연구의 부재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관심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여성노숙인의 존재와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쉽게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여성노숙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노숙의 원인, 유입경로 등에 대한 이해가 효율적인 여성정책 및 대책에 선행조건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반적인 여성노숙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이는 유형별 노숙원인에 대한 상담사례를 통해 여성노숙인의 유입과정과 그들의 생활상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여성노숙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노숙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사회적 문제로 다뤄 볼 것이며 본 논문은 여성노숙이 분명 사회적 이슈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노숙인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 및 지원 대책에 관한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여성에게 있어서 거리노숙은 목숨까지 위협받는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이다. 그러한 집단적 노숙의 거리는 폭력과 폭언, 폭행 등이 난무하며 알코올 중독과 각종 질병, 사회에 대한 적대감 등이 존재하는 곳이므로 힘없고 갈 곳 없는 여성노숙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선택되어지는 최악의 환경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진 여성노숙인들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또는 노숙을 현재 자신의 삶으로 인정한 채 지내며 그런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 주거지는 물론 본인의 신분조차 불확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여성노숙인들은 정신적, 육체적 무기력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하지 못하고 순응하며 자신의 생활 중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성노숙은 남성노숙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위험하다. 여성들은 임신이나 자녀동반, 정신질환, 낮은 취업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 등의 문제를 다른 요인들과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고 남성들이 가정폭력이나 가족해체의 가해 내지 원인제공의 측면을 갖는다면, 여성들은 그에 따른 문제를 고스란히 감당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노숙의 위험에 까지 오게 되는 것이다.

여성노숙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어려서부터 일을 하거나 가출한 다음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지내게된다. 그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불안한 생활환경으로 주거사정이 날로 악화되어 노숙 직전에는 월세방이나 고시원, 쪽방 등을 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숨겨진 여성노숙인들이 많은데 이는 잠재된 위험군이 몇 배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숙은 어느 누구에게나 선택하기 힘든 조건이기는 하지만 남성들이 여성보다 쉽게 노숙을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여성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노숙을 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도원이나 철야예배를 하는 교회 등에서 사실상 노숙 상태로 지내는 여성들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식당이나 공장 등에서 생활하는 여성의 수가 많다. 따라서 여성노숙인의 모든 문제를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에 국한시키지 말고 그럴 위험이 높은 한계상황의 여성 및 가족으로 정책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수적이다(김수현, 2001).

이에 본 연구 목적은 여성노숙인들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연구자가 직접 겪은 사례들을 토대로 여성노숙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문제는 무엇인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여성노숙 현황과 여성노숙인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여성노숙의 노숙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여성노숙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이 있는가.

본 여성노숙인에 대한 사례연구는 여성의 거리 유입 원인과 경로 등 노숙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제도적, 여성복지차원에서 여성노숙인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이며 전문화된 시스템을 촉구하는데 초석이 되리라 기대한다.

3.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여성학의 학문적 발달은 1960년대 페미니즘의 '제2물결'을 거치면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여성학 연구는 기존의 학문 속에 있는 개념과 이론 등을 재평가하고, 연구 과정 속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방식과 연구 결과 속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특성을 드러내는데 치중하고 있었다. 이 후 여성학은 과학적 연구 방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학 연구 방법, 여성주의적 연구 방법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왔다. 여성학에서는 실증주의가 갖고 있는 이분법을 비판하면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고 본다. 더 나아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분리로 인해 연구 참여자가 '타자화' 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또한, 여성학에서는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의 '착취'와 연구 참여자에 대한 '타자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론적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질적 방법 중 생애사, 구술사 등 연구자가 참여자를 면접하여야 할 경우, 인터뷰 시간 책정이나 질문 구성에 있어서도 최대한 연구 참여자 입장을 고려하여야 하고, 연구자의 일방적인 질문이 아닌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에 대해 궁금한 점도 해결해 주어야 하며, 연구자의 권위나 권력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최근 서구 여성주의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하에서 지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 을 제시하고, Donna Haraway가 주장하는 '장소의 정치학과 인식론(politics and epistemology of location)' 은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을 지식의 근거로 상정한다. 즉 모든 지식은 특수한 상황, 장소, 위치에 기초하여 나오는 상황적 지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적 지식 연구는 질적 연구 방식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성과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객관성에 더욱 접근할 수 있다는 역설을 가능하게 한다(윤태림,

2004).

질적 접근의 하나인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ing)은 경험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량의 형태가 아닌 진술(statement)의 형태를 통해 전달한다. Depner 등(1984)은 질적인 조사가 갖는 독특한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질적인 조사는 조사문제를 형성하는데 응답자의 관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개방적이고 비 구조화된 인터뷰, 참여관찰과 같은 기법들은 정보제공자의 관점에서 특별해 보이는 문제 영역에 초점을 둔다. 둘째, 질적인 조사는 응답자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차이를 추구한다. 질적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의 탐구로서, 이는 행동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셋째, 질적인 조사는 응답자의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말을 정확히 사용한다. 질적인 조사는 양적인 조사의 결과를 지지할 사례를 응답자의 말로써 제시해준다.

본 연구는 상담 자료를 통한 문헌연구를 기초로 했으며 질적 사례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2006년 1월에서 2006년 11월까지 10개월간, 연구자가 근무한 여성노숙인 전용일일시설인 '우리들의 좋은집'[2]에 입소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들의 좋은집' 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운영되는 여성노숙인 전용일일시설(drop-in center)이다. 여성노숙인들이 노숙상황에서 일차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응급센터이고, 실제 지난 1년여 동안 200명이 넘는 여성노숙인이 일일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이곳을 경유해 안정적인 쉼터로 연계되고 있다. 즉 '우리들의 좋은집' 이용자

2) '우리들의 좋은집' 은 잠잘 곳이 없는 여성들과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는 모자 가족이 편하게 들러서 씻고, 세탁하고 잠도 잘 수 있는 일일이용시설이며 정신건강이 취약하거나 노숙이 만성화된 여성들을 위해 목욕이나 세탁 등 노숙생활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는 이용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5년 한국여성재단과 한화건설의 지원을 받아 운영공간을 마련하여 여성상담보호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여성노숙인들이 일정 기간 휴식 후 귀가하거나 장기적인 생활이 가능한 쉼터 또는 가정폭력 쉼터 등에 연계되도록 돕고 있다.

들은 현재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여성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여성들, 정신장애로 인해 노숙을 하게 된 여성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여성들, 노숙직전 아니면 거리에서 생활한 여성들이다. 여성노숙인 쉼터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고 더구나 일일이용시설로는 유일한 '우리들의 좋은집' 은 그런 의미에서 노숙 여성의 실태를 어느 정도 대표한다. 본 연구는 초기의 기초상담일지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했으며 노숙결정요인에 따라 사례별로 나누었다.

연구 참여자는 '우리들의 좋은집'에 입소한 여성노숙인들 중 가정폭력으로 좋은집을 이용한 4명, 경제적 빈곤으로 입소한 3명, 가족과의 단절 및 해체로 입소한 3명,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2명, 사건과 사고로 입소한 2명을 선정하여 총14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처음 입소하게 되면 상담을 통해 인적사항과 노숙 요인 등 개인력에 대해 면담이 실시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욕구파악이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의 욕구를 파악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면접시간은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인터뷰는 1:1 면접방법으로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사례연구의 대상자들은 처음 입소하여 연구자가 직접 상담한 여성들이며 긍정적으로 면접에 응해준 여성들이 중심이 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상담사례를 연구목적에 맞게 정리한 후, 연구에 사용됨을 고지하고 참여자의 동의를 얻었다.

참여자들 중 정신질환 사례의 경우는 그 증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경미한 정도의 여성을 선별했으며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우울증 정도의 증세를 보인 여성들이며 알코올 중독의 사례는 음주 시 입소가 불가능하다는 시설의 이용 수칙 상 사례기술에 적용시킬 수 없었다. 또한 상담 중 학력 등 본인의 사생활을 밝히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기재하지 못한 부분은 그런 이유이다. 노숙경험이 없는 여성은 노숙경위 사유에

시설의 이용사유로 대신하였다. 사례 기술에 있어 각각의 연구 참여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였고 위의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사례	연령	학력	결혼상태	이용경로	직전주거	노숙경험	노숙경위	
							기간	사유
김숙진	54	고졸	기혼/해체	관련기관	노숙	유	1일	가정폭력
김현선	41	-	기혼/해체	현장상담소	쉼터	무	-	가정폭력
박정순	26	대학재학중	미혼	전화문의	집	무	-	가정폭력
김혜자	55	-	기혼/해체	관련기관	서울역	유	-	가정폭력
이송이	37	중졸	기혼/해체	시민안내	노숙	유	-	경제적어려움
김신자	66	-	기혼/해체	사회복지과	컨테이너	무	-	경제적어려움
최미자	49	고졸	미혼	현장상담소	집	무	-	경제적어려움

고미정	58	무학	미혼	아웃리치	여인숙	무	-	가족 해체
박순려	73	초졸	기혼/ 해체	아웃리치	서울역, 아는집	유	20여년	가족 해체
신숙진	76	-	기혼/ 해체	현장 상담소	쉼터	무	-	가족 해체
최은실	43	-	기혼/ 해체	경찰지구대	노숙	유	-	정신 질환
이정희	43	고졸	사실혼	관련기관	정신병원	무	-	정신 질환
박경애	70	-	기혼/ 해체	시민안내	노숙	유	2 개월	사건 사고
박춘자	66	-	기혼/ 해체	경찰지구대	집	무	-	사건 사고

Ⅱ. 여성노숙의 원인과 노숙현황

1. 여성노숙인의 정의와 범위

1) 여성노숙인의 정의

노숙인(homeless)이란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숙소가 없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을 일컫지만,[3] 국가나 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미국의 경우에 NCH(National Coaliation for Homeless)는 노숙인을 '정규적이고 고정된 적절한 주거시설이 없고 주로 길거리나 일시적인 보호시설,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공공의 장소 등에서 자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NCH, 2003). 영국은 주택법에서 노숙인을 '영국이나 점유권이 인정되는 기타 장소에서 거처할 곳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모든 지방 정부들은 마땅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이들 나라들의 정의를 보면 노숙인이란 단지 거리에서 숙박하는 사람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법적인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이라는 말은 매우 복잡하다.

노숙인(homeless)이란 단어는 무엇보다 거주지의 부재를 의미하며, 그래서 다양한 임시방편의 공간 즉 거리에서 숙박하는 사람들 혹은 일시적 수용시설이나 응급쉼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또한 노숙인이라는 말은 장소(place)와 그곳에 정착한 사람과의 유대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만큼 노숙인이라는 말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노숙인이야말로 사회

3) 국어사전에 의하면 노숙자(露宿者)란 '길이나 공원 등지에서 한뎃잠을 자는 사람' (국립국어연구원, 2003)이다. 일반적으로 노숙이란 일정한 숙소가 없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을 일컫고, 광의로는 자기 집이 아닌 불안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모두 포괄하여 노숙인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적 소외(dislocation), 극빈곤, 계절노동, 삶의 비 관례적인 방식등과 결부되어 있는 개념이다(김진미, 2003). 노숙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는 곧 노숙인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노숙인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고 시행되지 못하는 임시사업이였지만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내 기존 부랑인 조항 외 노숙인 보호조항이 삽입되어 개정되었고, 비록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시설운영규칙을 정한 수준이지만 2005년 후속조치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이 제정돼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응급구호적인 임시사업으로 지원되어 오던 노숙인 지원사업의 제도화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Rossi에 의하면 노숙인이란 주거를 확보할 관습적이고 정례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를 의미하며 노숙지를 기준으로 쉼터를 이용하는 노숙인을 쉼터노숙인(shelter homeless)으로, 거리에서 숙박하는 노숙인을 거리노숙인(street homeless)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노숙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거리에서 숙박을 하는 노숙인 즉 ‘거리노숙인(street homeless)’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숙인인 ‘쉼터노숙인(shelter homeless)’이다. 노숙인의 수 역시 거리노숙인과 쉼터노숙인을 집계하고 있다(김진미, 2003)

이와 관련하여 거리와 쉼터의 노숙인만을 헤아리는 것은 응급보호와 같은 즉각적인 대비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예방적 관점에서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들도 많다(김수현・정원오, 1999 : Avramov, D.,1999). 실제로 주요 노숙지역 주변에 산재한 불안정 주거지, 예를 들면 만화방, pc방, 심야다방처럼 원래 숙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곳에서 밤을 보내는 눈에 띄지 않는 노숙인들도 많을 뿐더러, 여관, 여인숙, 쪽방 등지에서 하루하루 일세를 내고 생활하다가 수입이 적으면 노숙을 병행하기도 하는 간헐적인 노숙인들도 많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다(보건복지부・서울시, 2000 ; 서울시

노숙자대책협의회, 2000 ; 시정개발연구원, 2002b).

2) 여성노숙인의 범위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노숙인인가를 합의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지지해 줄 가족이 없거나 해체된 상태로, 일상 주거를 해결할 대책이 없는 여성”으로 정의되긴 하지만 여기에도 상당한 논란거리가 담겨져 있다. 가장 단순하게 보면 ‘거리로 나온 상태’를 노숙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노숙인에 대한 정책으로 보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본다. 거리에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일 경우에는 ‘불안정한 주거상황’이야말로 가장 신경 써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는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용인수준에 따라, 또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노숙인 인정범위는 거리노숙 여부에 따른 ‘사후적인’ 판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민간단체들은 ‘불안정한 주거’를 포함하는 예방차원의 기준에 따라 보호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노숙과 비 노숙의 경계에 있는 염가숙소 이용자들을 함께 포괄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노숙 상황에 대한 응급대책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현 노숙인 정책대상이 집계되는 쉼터노숙인과 거리노숙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진미, 2003). 따라서 본 논문은 예비노숙인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여 노숙인 연구의 범위를 예비노숙인 즉, 현재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까지 포함시켰다.

기본적인 정의와 범위의 선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겉에서만 맴도는 비효율적인 노숙지원이 되므로 하루빨리 노숙의 범위가 예방차원의 기준에 따라

보호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사후예방과 대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거리노숙 상태에 있는 여성, 노숙인 쉼터 입소여성, 쉼터 퇴소 예정이지만 갈 곳이 전혀 없는 여성을 의미상 소극적인 범위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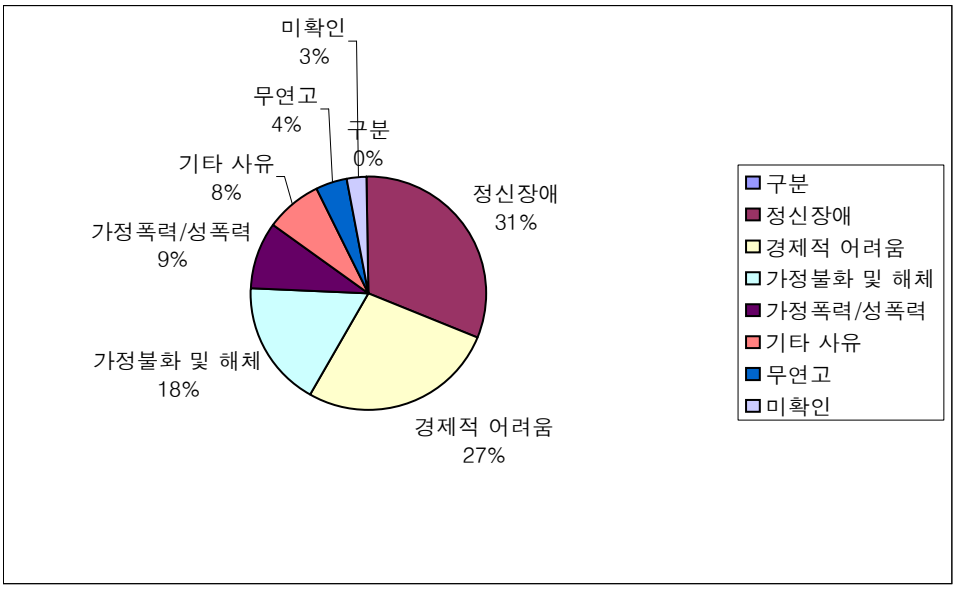
적극적 범위는 위 범위 외에 긴박한 상황으로 대책이 불가능한 여성을 포함한다. 또한 쪽방, 여인숙, pc방, 찜질방, 교회 등 불안정한 공간에서 지내는 여성, 침식제공이 되는 직장에서 생활하는 여성 등은 아주 위험한 예비 노숙인인 것이다. 이것을 포함한 범위를 적극적 범위로 봄과 동시에 그 범위의 위험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2. 여성노숙의 원인

노숙의 원인에 대한 관점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숙원인의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는 빈곤, 저렴한 주택의 부족, 열악한 경제적 조건 등이 있다. 개인적 요인에는 실직, 정신질환 및 신체건강문제, 가족문제, 사회적 관계의 단절, 개인의 무능 등이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빈곤과 관련해 경제구조, 주거, 사회안전망에 관련된 복지지원의 취약성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연관되어 악순환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회구조적 요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노숙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개인적인 요인은 노숙의 원인요소이기도 하지만 노숙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김광례, 2001).

이렇듯 여성이 노숙을 하게 되는 원인은 저소득·실업 등에 의한 경제적 빈곤,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 사회적 지지망 해체 및 부재 등이다. 여성노숙인을 위한 일일이용시설인 '우리들의 좋은집' 내부행정자료

(2005. 3 ~ 2006. 8)를 참조하면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정신장애,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및 해체,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등이 노숙진입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1> 우리들의좋은집 이용자 노숙요인

*출처: 우리들의 좋은집(2005.3~2006.8) 「내부행정자료」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정신장애가 노숙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노숙을 하기 전부터 질환이 있었는지 노숙을 시작하면서 질환을 앓게 된 것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서울역 주변에 여성노숙인들은 첫 눈으로 봐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더욱 심각한 여성노숙인의 문제 중 하나는 아이를 동반한 정신질환 여성의 경우이다. 이는 아동에 대한 방임과 학대까지 야기시킴으로써 큰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위의

그림을 기초로 여성노숙의 원인을 파악하면 크게 정신장애·질환 등 심리적 측면과 경제적 빈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단절 및 해체, 가정폭력, 사건·사고, 알코올 중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정신장애와 알코올 중독

IMF 이후 경기불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자신감 상실 등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여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정신질환에 시달려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병리현상은 거리노숙이나 극단의 선택인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의 개념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은 정신병적인 것과 신경증인 것은 모두 포함하면서 현재 질병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질병의 개념을 강조한 용어이다. 반면에 정신장애는 증상 치료적 입장을 포함하여 질병으로 인해 파손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재활의 측면을 강조한 용어이다. 정신적 문제를 가진 여성노숙인은 신체화, 공포불안, 우울증 영역의 건강상 문제와 심리적 요인이 크게 나타나며 예민증 또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노숙기간을 연장시키는 작용을 하며 알코올 문제와 함께 사회적 기능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거리생활은 정신적인 문제로 노숙을 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와 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노숙은 정신질환과 함께 심리적 측면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TO)에서는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사용이 그 사회에서 수용하는 범주를 초과하거나 부적절할 때, 또는 과도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인 활동에 손상을 입힐 때”라고 한다.

노숙을 하는 알코올 중독 여성들은 좌절감과 불안함으로 알코올에 의존하고, 만성화되어 살아간다. 다른 노숙인들과 어울리거나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해 결국은 알코올 남용 및 의존이라는 알코올 중독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수치심과 자책감 등 여러 복합적인 기분과 가족 또는 친구가 그리워서 술을 마시게 된다고 한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노숙생활을 하게 될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노숙생활을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술은 여러 해로운 측면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의 부정적인 작용으로는 불규칙적인 생활과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갖지 못하는 것과 현실을 탄식하면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어 노숙의 만성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여성 노숙인의 알코올 문제는 실질적으로 다른 정신장애의 유병률이 높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면에서 손상이 더 심하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음주는 노숙의 만성화를 야기시키므로 이에 전문적인 치료센터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노숙인의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 문제는 단기간에 치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그만큼 사회화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개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

2) 경제적 빈곤

여성에게 있어 빈곤현상은 서구에서 1970년대부터 정형화된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4]경향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게 되었고 최

4) 정현백에 따르면, '빈곤의 여성화' 이슈는 이미 1976년 미국에서 다이애나 피어스(Diana Pearce)의 조사결과와 더불어 제기됐다. 미국의 16세 이상 빈민 중 약3분의 2, 성인 빈민의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에서 드러나듯이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의 절대다수가 여성이 되어 가는 것' 이다. 따라서 80년대 미국 정부의 '빈곤과의 전쟁' 에서는 성을 고려하는 정책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빈곤의 여성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더 빠르고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빈곤문제연구소의 200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여성가장의 비율은 18.5%인데 비해, 빈곤가구 중 여성가장의 비율은 45.8%에 이른다. 그래서 여성가장의 빈곤 위험률은 남성가구주의 경우보다 3배 이상 높

근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내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최근 빈곤정책 관련 논의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즉, 여성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지위와 육아, 가사 부담으로 인해 노동시장 경쟁력이 낮고, 빈곤화 정도가 남성에 비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가족해체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회적 조건에 처한 여성들을 보호하는 문제가 중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김수현, 2001). 빈곤의 여성화를 언급한 Pearce(1978)은 직업의 게토와 차별, 성별직종분리 등이 여성빈곤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하면서 이혼, 미혼모, 독신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가 동시적으로 여성의 빈곤을 심화시킨다고 보았다. 이를 노동 시장 내 여성의 지위를 중심으로 빈곤의 요인을 살펴보면 주로 실업과 고용불안정 현상에 주목할 수 있다. 여성의 대량실업은 여성 자신만이 아니라 여성이 생계의 주 소득자였던 여성가장 가구의 소득과 빈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이숙진・정경아, 2001).

최근 우리나라는 가족해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러한 과정에서 빈곤, 저학력, 불안정한 직업, 결혼생활, 가족관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고는 여성을 노숙의 위치에까지 놓이게 만들었다. 한 사람이 노숙인이 되는 과정에 등장하는 이런 다양한 원인들은 사실 조금만 살펴보면 서로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 아주 유기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고 원인과 원인들을 끊을 수없는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극빈계층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빈곤 여성들은 부모대부터 가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교육 수준이 평균보다 낮고 또한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하다. 이처럼 낮은 학력과 비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는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그리고 빈곤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유지를 위해 낮은 임금,

---

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파산, 신용불량자 양산 등은 이혼과 배우자 가출을 증대시켰고, 한 부모 여성가구주는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중앙일보, 2006. 2. 8).

대우의 차별 등을 감수하면서 노동시장 안에 남아있다. 특히 중장년 여성들은 한 번 일자리를 잃게 되면 열악한 노동시장 속에서 장기실업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는 비교적 많은 수가 취업을 한 상태이지만 대부분 소득이 낮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이혼, 사별, 배우자 가출 등의 가족해체로 인해 가정을 책임지게 된 여성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고자 노력하지만 과거에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없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아 구직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수현, 2001).

이렇듯 저임금이나 실업으로 인한 빈곤 때문에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구조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빈곤, 저렴한 주택의 부족, 빈부의 양극화 현상, 열악한 경제적 조건 등도 여성노숙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은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 등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로 인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계획 등을 가지기 힘들며 상황이 악화되면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하게 되는 것이다.

3) 가족과의 관계단절 및 해체

가족해체의 발생원인은 가족을 둘러싼 외부환경으로서 사회체계, 그 하위체계인 가족의 내적 환경 및 생활요소, 이들 체계 상호간의 자극 및 적응과정의 지속, 상호작용 및 조정과정의 실패 등에 의한 하위체계의 붕괴라는 체계론적 분석틀에 기반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과 긴장,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의 장애, 가족구조상의 결함, 가족구성원의 신체적 및 심리적 변이 등의 내적 요인과 가족의 사회적 적합성을 방해하는 사회체계 및 사회변동, 특히 주부의 취업, 제한된 사회이동의 기회 등의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해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해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김승권, 2002).

가족해체라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취약한 가족구성,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약한 것도 노숙인의 삶과 관계가 깊다.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훈련되지 못한 가족 간의 유대감과 성장하면서도 이어진 빈곤은 이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족구성을 어렵게 만든다. 취약한 가족구성을 가질 경우 빈곤과 불안정한 직장생활은 정상적인 가족구성을 어렵게 하고 가족을 구성 하더라도 쉽게 해체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가족해체는 사건과 사고 등 개인적인 불운도 작용을 한다. 예상치 못한 배우자의 사망, 가출, 이혼, 질병, 범죄, 사기, 사업 실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사고들 속에 무방비 상태로 타격을 받아 사건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물질적, 정서적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거리의 생활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남성노숙인은 노숙직전에 가족, 친척, 친구 등과의 관계단절이 많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노숙을 시작하기 상당기간 전부터 이미 가족과의 해체를 경험했거나 가족, 친척, 친구 등과의 관계단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현, 2001). 관계단절 상태란 사회적 지지의 부재를 의미하며 단적인 예로 사회적 지지가 많으면 자살에 대한 생각이 적어진다고 한다(김유자, 2003).

4) 가정폭력

폭력이란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물리적으로 위협하거나 손상을 일으키는 행동이다. 우리는 '폭력'하면 쉽게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성폭력,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태만, 의무의 불이행), 방임 등의 가해적 행위를 모두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 이것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 질 때에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또는 '학대' 라고 말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남편폭력, 부모폭력, 형제간 폭력 등이 포함된다.

많은 여성들은 가정 문제로 인하여 집을 나오게 되면 마땅히 갈 곳이 없다. 대부분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남아 상황을 참거나 가정폭력 쉼터에 입소를 하거나 또는 거리의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빈곤계층의 매 맞는 아내들은 학대받는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노숙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김광례, 2001). 특히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된 여성은 거리에 나오게 되면 공공이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쉼터에 입소하거나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 할 수밖에 없다. 가정폭력은 남성노숙의 원인과 다르며 여성노숙 원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폭력 앞에서 약한 여성들은 사랑내지 자녀들 때문에 견딜 때까지 견디다 집을 나오게 된다.

여성주의적 입장에서는 가정폭력을 남성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학대로 이해한다. 가족구성원간의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등장하는 단순한 물리적 힘의 사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남녀불평등에서 비롯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수단으로 폭력이 동원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전 과정이 직접 간접적으로 가부장적이고 남성지배적인 사회질서와 가족구조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아내구타는 이러한 종속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본다(김명환, 2005).

이것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성문제의 기본이 되는 여성무시 등 여성 차별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남존여비사상의 남자는 하늘과 여자는 땅이라는 구시대적인 사상이 역사적으로 세습되어 온 결과이다. 이렇듯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독립을 원하지만 여성의 자립과 복지를 위한 국가적 배려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정을 떠나지 못하고 가해 남성에 종

속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국가는 가정폭력이 중하여 그 파장이 울타리를 넘지 않는 한 불개입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남녀평등 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본다(김명환, 2005). 우리나라는 가정 내의 폭력을 개인과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사회통념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보아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추세는 남녀평등과 함께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조직에 여성부가 신설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한 사회문화 측면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당사자, 가족구성원, 법 집행기관 등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사회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김명환, 2005).

물론 경제적 빈곤과 각종 스트레스, 많은 가정 내의 문제들로 인하여 폭력을 행사했다고는 보지만 어느 것도 폭력을 묵인하고 인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종쯤으로 여겨 생기는 모든 사건들은 힘없는 여성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3. 여성노숙인의 일반적인 특성

여성노숙인의 특성은 크게 자녀동반, 사회적인 지지망의 부재, 정신질환, 숨겨진 여성노숙인으로 나눌 수 있고 대부분의 여성노숙인들은 거주지가 불안정하며, 자존감이 낮고, 근로능력이 취약하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가족·이웃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거나 해체된 상태로 신용불량자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여성노숙인의 특성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녀를 동반한 여성노숙인들의 수가 많다. 우리나라는 모자보호시설은 물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노숙인쉼터 등에 입소한 많은 여성들이 자녀를 동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녀 동반이 남성노숙인과 구분되는 여성노숙인의 중요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김수현, 2001). 자녀를 동반한 여성노숙인은 대부분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이와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는 경우이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나마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홀몸으로 집을 나오지만 남편의 폭력성이 너무 심해 아이들에게까지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아이를 동반하게 된다. 이렇듯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일일이용시설 또는 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이다. 가족, 친척,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도와줄 만한 지지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관련이 있어 구직활동, 자녀양육, 직업교육 등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타인에게 공격적인 성향, 예민증 등이 드러나게 되어 사회 밖으로 점점 내몰리게 된다. '우리들의 좋은집'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회적인 지지망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부모형제가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청 할 수 없고, 이런 경우 물질적 지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가족만큼 삶에서 중요한 후원자는 없다. 보통 노숙인들은 이것이 결핍되어 있고 친척은 물론 친구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없다. 항상 혼자이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다.

세 번째, 노숙을 하는 여성들의 특성 중 하나는 보통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과거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이상증, 공격성, 우울증, 과대망상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노숙을 하는 여성 중 정신분열증 환자를 일반여성과 비교하면 알코올중독, 약물 중독, 지지망의 부재, 반사회적 개인성향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여성노숙인들은 청소년기에 아버지, 이성친구, 데이트 파트너 등으로부터 신체적인 폭행,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현, 2001).

이러한 상황들은 과거의 정신적 쇼크에 의한 정신이상, 공포에 의한 정신이상의 한 원인이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여성노숙인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치료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5)]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여성노숙인들은 거의 대부분 병원력을 갖고 있다. 오랜 병원생활이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병원에서 탈출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이처럼 대책 없이 사회로 나온 여성들은 온전하지 못한 정신으로 인해 거리 노숙의 위험에 놓이고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체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거리로 나온 여성들은 여성노숙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임과 동시에 특별한 대책 안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제가 있는 여성들은 쉼터로의 입소가 어렵다. 만약 입소를 하였다하더라도 본인이 공동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 판단이 어려운 정신질환의 문제를 가진 여성노숙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의 확충이 요구되고 그 과정 안에서의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정신장애를 갖은 이러한 여성노숙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을

5) M. J. Robertson & M.A. Winkleby, "Mental Health problems of homeless women and differences across subgroups", *Annu Rev Public Health,* 17, 1996, pp.331-36.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여성노숙인의 특징적인 것은 숨겨진 여성노숙인들이라는 것이다.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이 거리에서 노숙을 한다는 것은 성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쉽게 거리에 나오지 못하며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임시숙소나 쉼터를 이용하지 못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인숙, 쪽방, 친구집, 친척집, pc방,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 소위 말해 'hidden homeless'가 되는 것이다. Webb에 의하면 hidden homeless는 visibly homeless의 반대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visibly homeless란 홈리스로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보호를 받아서 공식통계에 잡히는 홈리스, 관련 기관과 접촉하거나 쉼터에 머무르고 있는 홈리스, 그리고 도심의 알려진 지역이나 장소에서 노숙하는 홈리스를 뜻한다고 정의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그 자녀, 가출청소년, 미혼여성, 미혼모 등이 hidden homeless 가운데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숨겨진 예비여성노숙인들은 정부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으며 친구집, 숙식을 제공하는 직장 내 숙소, 기도원, 일세방 등을 전전하는 여성들이 이에 속한다(김수현, 2001).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든가 현재의 상황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힘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쉼터, 이용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아니면 노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일일이용시설이나 쉼터 등으로 도움을 청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 한 경우는 하루, 이틀 반복적으로 거리에서 지내게 되다 결국 만성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렇듯 잠재된 노숙인들도 거리와 쉼터에 있는 노숙인들과 같은 예비노숙인으로서 여성노숙인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

여성노숙인들의 특성 중 또 한 가지는 인지능력과 판단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노숙위험에 놓여 쉼터 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남성노숙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부채문제를 갖고 있으며 문제는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생활을 하는 남성노숙인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하루하루 빚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을 당했거나 신용도용을 당한 경우, 법조차도 힘이 없는 소수의 존재라는 이유로 노숙인의 사건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부채로 인한 파산신청을 하려해도 과정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노숙인의 입장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의 법률적 도움과 노숙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 여성노숙인의 현황

1) 좋은집 입소자 현황

노숙여성 및 가족쉼터는 전국적으로 10개소, 정원은 350여명이며, 약300여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외에 서울지역의 경우 미지원시설이 2개 4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족 노숙 시 입소할 수 있는 쉼터는 6곳인데, 그 중 부자가정만이 입소 가능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아동을 동반한 모자가정인 경우이다. 단신여성 노숙인 중에는 약 25~30명이 일일 쪽방시설 조차 얻지 못해 거리에서 밤을 지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략적인 수치는 단지 눈에 보이는 수치에 불과하며 노숙인 쉼터나 거리이외에 사우나, 교회철야예배장소, 사설요양원, 기도원, pc방, 아는 집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렇듯 준 노숙 상태에 있는 여성 및 가족의 수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워 민간에서도 정부에서도 조사된 바가 없어 아쉬운 점을 남긴다.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1999년 말, 서울지역 쉼터에서

생활하는 전체노숙인은 4,600여명에서 2004년 말 2,975명으로 1,600여명이 줄었으나, 여성노숙인의 수는 2000년 106명(2004. 1. 31 현재)에서 2005년 161명(2005. 1. 31 현재)으로 60% 증가한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서정화, 2005). 2005년 3월에 개소한 여성노숙인의 유일한 일일이용시설 '우리들의 좋은집'의 내부행정자료에 의하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총 이용자수는 6,212명(숙박자수만 집계)이다. '우리들의 좋은집'은 재이용이 가능하며 이 중 처음으로 입소한 이용자수인 신규이용자수는 325명으로 나타났다. 계절적으로 이용자수의 변동도 크게 나타나며 겨울에는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날씨가 좋거나 주말에는 이용자 수가 많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음은 신규이용자 325명을 분석한 것이다.

<표 2> 연령대와 노숙경험 여부

(단위 : 명 / %)

연령대구분	명수	백분율(%)
10대이하	32	9.85
20대	57	17.54
30대	68	20.92
40대	80	24.62
50대	48	14.77
60대이상	39	12.00
미확인	1	0.31
노숙경험여부구분	명수	백분율(%)
경험 있음	181	55.69
경험 없음	140	43.08
미확인	4	1.23
(합계)	325	100.00

좋은집 입소자중 10대 이하는 32명(9.85%), 20대 57명(17.54%), 30대 68명(20.92%), 40대 80명(24.62%), 50대 48명(14.77%), 60대 이상 39명(12.00%), 미확인 1명(0.31%), 총 325명으로 조사됐다. 4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입소하였으며 이 연령대는 가정의 불화나 폭력 등 가정의 문제로 인한 가출이 많았고 나이가 많은 여성들의 입소가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20대, 30대도 많은 수를 차지했다.

노숙경험 여부는 노숙경험 있음이 181명(55.69%), 노숙경험 없음이 140명(43.08%), 미확인이 4명(1.23%),이다. 통계로 보았을 때, 노숙경험이 있음과 없음의 수적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상당수 여성들은 거리노숙이나 관련시설이용 등 노숙 위기의 급박한 상황에서 드롭인 센터를 찾는다. 노숙경험이 없는 경우는 가정폭력, 가정불화, 경제적 파산 등으로 급하게 집을 나왔다거나 그나마 돈이 있어 찜질방, pc방, 친척집, 친구 집 등에서 지내다 갈 곳이 없어 입소한 여성들이였다.

<표 3> 가족형태와 이용경로

(단위 : 명 / %)

가족형태구분	명수	백분율(%)	비고
단신여성	271	83.38	
모자가족	54	16.62	* 총 24가족
이용경로구분	명수	백분율(%)	
상담소	70	21.54	노숙인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등
경찰	54	16.62	
아웃리치	53	16.31	동료노숙인(7명)포함
쉼터	39	12.00	
기타 관련기관 및 시민	52	16.00	복지관,의료기관,종교기관 등
1366위기전화	22	6.77	
지자체	19	5.85	동사무소,구청,고용안정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여의도치안센터,수원가법소 등
직접문의	13	4.00	전화문의,인터넷검색,직접방문
미확인	3	0.92	
(합계)	325	100.00	

가족형태로는 단신여성이 271명(83.38%), 모자가족이 54명(16.62%) *총24가족으로 나타났다.

이용경로는 상담소 70명(21.54%), 경찰 54명(16.62%), 아웃리치 53명(16.31%), 쉼터 39명(12.00%), 기타 관련기관 및 시민이 52명(16.00%), 1366위기전화 22명(6.77%), 지자체 19명(5.85%), 직접문의 13명(4.00%), 미확인이 3명(0.92%)으로 나타났다. 서울역상담소를 통해 입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찰과 함께 동행 한 경우이다. 그리고 거리에 직접 나가 노숙인을 안내하는 아웃리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좋은집 이용 직전 주거와 노숙사유

(단위 : 명 / %)

좋은집이용직전 주거구분	명수	백분율(%)	비고
자기집(전월세 포함)	96	29.54	
거리노숙	98	30.15	
쉼터	40	12.31	
불안정주거	34	10.46	쪽방,여인숙,고시원, 찜질방,PC방 등
직장숙소	13	4.00	
종교시설	13	4.00	교회,기도원,절 등
기타	27	8.31	친척집,포이동 컨테이너,교도소,경찰서, 병원 등
미확인	4	1.23	
노숙사유구분	명수	백분율(%)	
정신장애	92	31.19	정신지체(2명) 포함
경제적 어려움	79	26.78	
가정불화 및 해체	52	17.63	가출 포함
가정폭력/성폭력	28	9.49	
기타 사유	23	7.80	만성질환 및 장애, 주거불안정 등
무연고	13	4.41	
미확인	8	2.71	
(합계)	295	100.00	

좋은집 이용직전 주거로는 자기집(전월세포함)이 96명(29.54%), 거리노숙 98명(30.15%), 쉼터 40명(12.31%), 불안정주거 34명(10.46%), *쪽방,여인숙,고시원,찜질방,pc방 등. 직장숙소는 13명(4.00%), 종교시설 13명(4.00%), 기타가 27명(8.31%), 미확인이 4명(1.42%)으로 조사됐다. 이용직전 주거로는 거리노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집, 쉼터, 불안정주거, 기타, 직장숙소·종교시설로 순으로 나타났다. 좋은집은 여성노숙인 전용일일이용 시

설 이다보니 거리에서 노숙을 하다 오게 된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거리노숙을 한 여성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입소하는 여성들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또는 아웃리치 등의 타인의 권유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본인의 의지로 입소하는 경우는 자기집에 살다 갑자기 경제적 상황이 나빠졌다거나 불안정 주거생활에 지친 여성들이였다.

노숙사유로는 정신장애가 92명(31.19%), 경제적 어려움이 79명(26.78%), 가정불화 및 해체가 52명(17.63%),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28명(9.49%), 기타사유로는 23명(7.80%), 무연고가 13명(4.41%), 미확인이 8명(2.71%)이다. 노숙사유로는 정신장애나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및 해체,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5> 좋은집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 명 / %)

상담 및 편의서비스 이용	숙박	정신과 진료/투약	보건소 검진
325명	283명	36명	28명

좋은집 서비스 이용현황으로는 상담 및 편의서비스이용이 325명이며 숙박이 283명(87.08%), 정신과상담 및 투약은 36명(11.08%), 보건소검진이 28명(8.62%)으로 나타났다. 좋은집에 입소한 경우, 잘 곳이 없어 오는 여성들이라 거의 숙박을 한다. 상담을 거쳐 내담자의 욕구를 파악해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지원을 하고 있으며 숙박, 샤워, 식사, 세면도구, 여성용품 지급 등의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여성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지내는 동안의 투약을 책임지며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검진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표 6> 좋은집 신규이용자 조치 사항

(단위 : 명 / %)

쉼터 의뢰	취업의뢰	병원입원 의뢰	자립/ 귀가귀향
115명	4명	8명	73명

좋은집 신규이용자 조치사항으로는 쉼터의뢰가 115명(35.38), 취업의뢰는 4명(1.23%), 병원입원이 8명(2.46%), 자립 및 귀향이 73명(22.46%)으로 나타났다. 쉼터의뢰가 가장 많았고 자립/귀가귀향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우리들의좋은집(2006) 「내부행정자료」

2) 여성쉼터 노숙인의 현황

<표 7> 서울시 여성쉼터수의 변화

연도	전체인원	쉼터수	여성・가족	
			인원	쉼터수
1999	2,750	103	77	7
2000	3,763	105	106	7
2001	3,461	104	116	7
2002	3,050	97	132	8
2003	2,504	65	105	6
2004	2,164	66	138	7
2005	2,276	52	161	8

위의 표는 매년 2월 쉼터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여성·여성가족은 여성쉼터의 여성 노숙인과 가족쉼터의 여성자녀를 포함한 인원이다. 그리고 여성가족쉼터수에는 남성가족쉼터는 제외되었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 쉼터 여성노숙인은 1999년 77명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 161명으로 조사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성노숙인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여성노숙인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여성 노숙인 쉼터이외에 별도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게다가 여성 노숙인 쉼터의 경우 2001년 이후 시설이 1개소 늘고 정원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IMF 직후의 상황에서 진전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노숙인과 가족노숙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는 전국에 11개소(2004. 12)가 있으며, 서울시에는 8개소(남성가족쉼터 1개소는 별도)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상담 보호센터는 서울에 1곳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쉼터의 대부분은 IMF 직후 적은 비용으로 긴급하게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이라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생활도 보장이 안 되는 구조에 비좁은 주거 공간, 생활규칙마저 까다로워 대부분의 거리노숙인은 입소를 꺼려한다(대한의사협회, 2005).

Ⅲ. 드롭인 센터(drop-in center)이용자의 유형별 사례

1. 유형별 사례연구

여성노숙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정사건에 의해 갑자기 노숙을 하게 되었다기보다 가족해체나 가정폭력, 정신장애,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 등을 반복,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점차 노숙인이 되어간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 다룰 여성노숙인 입소 원인에 따른 유형별 연구는 2장에서 노숙의 원인을 크게 가정폭력, 저소득 및 실업 등에 의한 경제적 빈곤, 가족과의 관계단절 및 해체,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 등 심리적 측면, 사건과 사고로 나누었듯이 입소 원인별로 상담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봄으로서 더욱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기로 한다.

(1) 폭력의 아픔

첫째로 가정폭력의 경우는 자녀를 동반한 경우가 많고 그 수도 많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남편의 폭력이 많긴 했지만 시어머니, 새엄마 등 식구들의 폭력도 적지 않은 수를 차지했다. 언어폭력 등을 포함해 여성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계가족의 성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고 거리노숙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한 여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비윤리적이고, 가정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것들이다.

폭력이란 고칠 수 없는 고질병과 같아 한번 폭력을 사용하게 되면 한 번

에 그치지 않고 습관적으로 행사하게 되어 여성이 참고 지낼 수 없는 큰 문제로 집까지 나와 마지막 수단이라 볼 수 있는 위험한 거리노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가정폭력이 원인인 경우에는 위기개입 및 안전공간의 확보 등 사회적 서비스가 최우선적이다. 그리고 법률적 서비스의 지원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나이는 54세이고 0000에서 연계한 여성이다. 본인이 당배를 피는 것 때문에 전부터 남동생과 마찰이 잦았으며, 어제는 남동생이 당배를 피웠다고 집에서 쫓아내 집 앞에서 하루를 지샜다고 하였다. 다리가 많이 부어있었고 충격이 커보였으며 정신이 없어 보였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평상시에는 먹을 것도 사다주며 잘하지만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고 방에 고양이와 가두어 놓는다고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아 이혼을 했다고 하였다. 일본에 있을 때 까페, 가라오케도 했었고 그냥 살만했다고 하였다. 일본에서 살다 한국에서도 조금 살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일본에서 이혼 후 한국 남동생 집에서 지내게 됐는데 올케가 아주 못 되서 재산을 가로챘다고 하며 남동생도 착하긴 한데 어쩌다보니 이렇게 된것이라 하였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지 묻어 지금은 충격이 너무 커 보이고 몸도 불편하니 일단 다친 곳 치료받으며 좋은집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일본에서 새언마와 살고 있는데 연락이 끊겼고 찾을 길이 없다 하였다. (김숙진, 54세)

일본에서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아 한국으로 건너와 동생 집에 같이 살았지만 동생과의 마찰로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 입소하게 된 경우이다. 입소당시는 바로 폭행이 있어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이 황폐해 보였으며 다리가 많이 부어있어 우선 치료를 해야 했다. 가정폭력이라하

면 남편의 폭력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렇듯 남동생, 새엄마 등 남편 이외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과거의 남편의 폭력으로 힘들어 했었는데 어제는 남동생이 자신을 때린다고 많이 속상해 했으며 지금 본인의 처지가 이렇다보니 일본에서 그 남자와 그냥 살 걸 하는 생각도 가끔 한다고 하였다. 가정이라는 집단은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질서 등이 무너지면 가족 간에 싸움이 발생해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폭력을 당한 이 같은 여성은 갈 곳을 잃어 거리로까지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 여성은 집을 나와 하루 집 앞에서 노숙을 하였고 다행히 0000에 도움을 요청해 입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정신이 없는 그 와중에서도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을 만큼 일자리는 여성노숙인들 모두가 원하는 소망 중에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나이가 많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여성들에게는 식당에서도 일을 주지 않는 실정이므로 일자리 구하기가 그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기에 소망의 하나로까지 자리 잡은 것이라 볼 수 있다.

00000라 000000 의허ㅌ 입소하였다. 포천이 주소지이고 기초수급자인 상태이다. 동거남라의 사이에서 세 자녀능 두었는데 큰아이는 다른 데 있고(아마도 사망하거나 다른 곳에 보낸 듯핢) 두 아이는 동거남이 데리고 있다고 하였다. 동거남의 폭력이 심해 견디지 못하고 혼자 집능 나왔으며 몇 해 전에는 아이등도 데리고 나와 0000에서 지낸 적도 있다고 하였다. 이번에 나와서는 의정부 모텤에서 지내다가 서웋에 와서 00구청 복지라에 가서 도윧 윤청했고, 00000에 7월 4일 입소했다고 하였다. 빋장라 갘등윽 빚어 거의 쫓겨나오다시피 퇴소했고 그 동안 쉰터에서 지낸데다 나옼 때 00000 소장님이 30만원윽 주었으나 친구한테 꿘 돈윽 갚느라고 남은 것이

10만원밖에 없다고 하였다. 아이들과 같이 살 계획인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하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대상이 못 되신다 알려드리고, 가족쉼터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 다음 달 수급비 나오면 고시원이라도 얻어 나갈 계획이며, 그 때까지 한 달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했다.(김현선, 41세)

사실혼의 상태에서의 폭력도 가정폭력 안에 포함된다. 첫 번째 남편사이에서의 폭력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함께 사는 두 번째 남편의 폭력이 심해 집을 나오게 됐고 아이들과는 떨어져 지내는 상태이다. 쉼터에 입소하게 되면 수급지원[6]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려는 여성 중에는 수급지원과 쉼터생활 중에서 이 같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은 당장 갈 곳이 없어 수급비를 포기하고 쉼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여성 중에는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여성들이 많은데, 아이들과 함께 살고는 싶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므로 일단 일자리를 구해 돈을 모아 어느 정도 안정적 위치에 놓이면 그때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 여성은 오른쪽 다리가 선천적으로 불편해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여성이다.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과 지냈는데 언마가 이유도 없이 자꾸 트집을 잡고 때려서 집을 나왔고 아버지는 주식하다가 망해 반신불수가 되어 집안에 누어 계시며 어머니가 일해서 생활하는데 윤즌 일을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시행일 2003·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시행일 2000·10·1]]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0·1]]

그만두어 집에 계신다고 하였다. 여동생은 대학교에 다니고 남동생은 군복무 중이라고 하였다. 3년 전 정신과 치료(우울증)를 1-2년 동안 받았고 약물을 복용했다고 한다. 본인은 이제 다 나았고 괜찮게 여기는데 자꾸 언마가 약을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며 때린다고 하였다. 하도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오기도 했으나 여동생이 언마 편을 들어 그냥 갔다고 하였다. 장애가 있어 직장생활은 거의 못했고 잠깐씩 아르바이트 정도는 했다고 하였다. 신체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돈을 벌겠다고 했다. (박정순, 26세)

엄마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집을 나오게 됐으며 면접 시에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다. 이 여성은 비록 정신 병력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입소를 하게 되었다기보다 가정 내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노숙위기에 놓였다고 본다. 입소당시 다리만 불편해 보였고 밖으로 드러나는 정신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다. 몇일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도 병세가 없어보였다. 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그러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은 보통 한 가지의 원인으로 거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통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 가정폭력을 당해 집을 나왔다거나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딱히 한 가지의 원인은 드물다. 그러기에 한 가지의 이유로 원인을 찾기란 무리수가 있었다.

남편의 외도로 딸을 데리고 예전에 집을 나왔으며 시동생의 성폭력도 있었다고 한다. 본인의 혼인신고상태도 확실히 모르고 있었으며 나중에 알고 보니 이혼으로 되어있더라고 하였다. 딸은 30세이고 사실혼이며 아이가 있다. 전에 시설에 있을 때 자활을 했었고 오른손은 전에 어떤 남자에게 맞아 수술했으며 무거운 것을 못 든다 했다. 쉼터에서 계속 지내다 나와, 주문진으로 내려가 숙집에서 일했으며 거기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부인이 있었고 그 남자한테 폭력 당해 몸이 성치 않다고 하였

다. 한 달 전에 서울 올라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혜자, 55세)

가족 안에서의 성폭력도 문제가 된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같이 사는 시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못하고 집을 나왔다고 한다.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 여성이 집을 나오게 되며 그 이후에 또 다른 힘든 상황이이어지는 것이다. 가정안에서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알 수 있으며 자신의 삶조차 포기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이상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가족이란 한 사회의 기본구성 단위이며 그 가족이 행복한 삶을 유지해야 사회가 안정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가정은 정서적 안정, 유대의 기능, 혈연관계의 존속 및 유지, 자녀양육 및 사회화의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정서적 안정과 유대기능은 가족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역할임에 불구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이렇듯 여성노숙이라는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2) 가난의 시련

두 번째 원인인 경제적 빈곤사례를 보면, 경제적 빈곤은 돈이 없어 갈 곳이 없는 여성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오게 됐지만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루 밤 지낼 곳이 없는 여성들, 또 정신적인 문제로 집을 나온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겪는 문제이다. 경미하게 정신장애나 질환이 있는 여성들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잠자리를 구한다. 그만큼 돈이 노숙원인의 근본적 문제인 것이다. 아래와 같은 몇 사례를 통해 빈곤이 노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오래 전 이혼하고 자녀는 전남편이 키운다는데 자녀들의 나이는 정확히 모르고 초등생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1년도 0000에서 1년 동안 지낸 적이 있다. 자활하여 식당일(주방 설거지)을 하며 돈을 모아 900만원 전셋집을 얻었으나, 이웃들이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나가 달라고 하여 주인도 그러길 원해 방을 빼지 못한 상태에서 고시원으로 나가 살았다. 몇 달 뒤 돌아와 보니 주인이 집을 팔아 바뀌었는데 새 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겠다고 한다. 전세계약서는 정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였다. 전셋집 얻으면서부터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길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시민에게 구걸을 했고 오늘도 구걸하다가 시민의 안내로 입소하게 된 것이다. 쉼터연계를 희망하는데 본인의 거주지가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우선 사는 곳의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수급자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설명해 드렸다. (이송이, 37세)

일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숙을 하게 되었다하여도 그 이전에는 가정해체, 가정폭력, 사건과 사고 등 단일요인이 아닌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 여성은 과거에 남편과 이혼을 했고 그로 인해 홀로 집을 나오게 되었으며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최후에는 노숙과 구걸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택하게 되었다. 전업주부로 집에서 지내다 갑작스럽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큰 심리적 신체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장년층 여성들에게는 특별히 교육받은 직업 훈련이 없어 대부분 식당일을 하며 간간히 집세를 내고 살아가는 실정이다. 그러다 일이라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집세를 못 내게 되어 그 이후에는 갈 곳을 잃은 채 쉼터에서 지내거나 노숙을 하게 된다.

000 사회복지관 실무자와 함께 방문한 여성이다. 000 000의 컨테이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 철거되어 나오게 됐다. 2004년 7월 집이 경매가 되는 일이 발생해 그 뒤로 여기저기 신세지다가 올 여름부터 포이동 컨테이너박스에서 다른 아줌마 아저씨들과 생활했고 컨테이너는 물도 안 나와 아저씨들이 물을 길어다 씻고 했다며 이런 시설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내심 좋아 했다. 남편과는 사별했고 자녀는 없으며 미아리에 모친과 동생이 있지만 도와주지 않고 신세지기 싫어 안 간다 했다. 전에는 파출부 일을 하며 살았는데, 건강 나빠진 3-4년 전부터 못했다. 집 넘어가고 어려워지면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으나 비용이 없어 안 했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약간의 언어장애 있었다. 부양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건강도 나빠서 기초생활보장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신청 안했느냐 하자, 안 그래도 그거 알아보려 하던 참에 컨테이너에서도 나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신자, 66세)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갈 곳을 잃은 66세인 이 여성은 부모형제는 있지만 도와 줄 형편이 안 되고 본인이 신세지기 싫다며 홀로 지내는 중이다. 전에는 간간히 파출부 일을 하며 지냈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 일을 못하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다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이 여성의 나이는 49세이고 월 30만원의 월세방에서 생활 중이나 현재 직업이 없어 방 유지가 어렵다고 하였다. 먼저 000상담소에 가 상담을 받고 00에 의뢰되었으나 예배참석을 강권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바로 나왔고 다시 000상담소 통해 시설로 오게 되었다. 1달까지는 지낼 수 있고 그 내에 갈 수 있는 쉼터를 찾아보자 했다. 기초상담 내용에 의하면 43세쯤 집에서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하여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가 집에 들어간 이후 모친과 사이가 나빠졌고, 4년 전 쯤 월세를 얻어 독립하였으나 노는 때

가 많아 오빠가 빌려준 돈을 많이 까먹어서 이젠 식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었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 했다. 집에서 독립한 후 처장직은 간병인(2년)이고, 노점도 몇 달 했었으나 처근에는 일하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주식도 하고 호프집도 하였으나 잘 안 됐다고 나이 갈수록 점점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런 데 오게 됐다고 하였다. 정부 생계비 지원받을 수 있을까 해 동사무소에 가 상담했으나 부양가족도 있고 안 된다고 하였다. OO에 갈 때 는 방이 어떤가 보고 결정하려 했다고 하며, 여기도 방을 보여 달라고 했다. (처머자, 49세)

이 여성은 가족과의 사이가 나빠져 독립을 하게 되었고, 독립 후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한 이유로 집세를 못 내게 되어 결국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가족해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이는 노숙을 하게 되기까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가족과의 이별

가족의 해체 및 가족과의 관계단절이 원인인 여성들은 거의 어려서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고아생활을 한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물론 이혼을 해 홀로 생활하는 여성들, 정신질환으로 집을 나와 홀로 떠도는 여성들, 나이가 들어 가족들과 함께 못 지내는 여성들도 가족해체 및 가족과의 관계단절 안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몇 사례를 통해 가족의 해체에 대해 살펴보면, 여러 이유로 가족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과 어떻게 노숙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이는 58세로 아웃리치를 통해 입소하였다. 직장생활 하다가 집에 가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오빠가 이사해 버려 연락이 두절됐고 9남매

중 막내인데 나머지 형제들 연락처와 사는 곳도 모른다고 하였다. 000 000에서 '여성 자활프로그램'에 참가하게 하여 36만원 지원받고 20만원짜리 방 얻어 살면서 5개월 동안 지냈는데 3월 29일 종결되어 그 뒤에는 남자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여인숙에서 지냈으나 남자친구들이 모두 어디론지 사라져 버려 도움 받을 길이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예전에 이 시설을 소개받고 근처까지 왔다가 못 찾고 돌아간 적이 있다고 하였다. 식당일을 해 본적은 있지만 이제는 스스로 구할 능력은 없고 공공근로 연계해 주는 쉼터에 보내 달라고 하여 며칠 생활하면서 쉼터 연계나 주거지원하기로 하였다. (고미정, 58세)

오랜 세월 식구들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다 결국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경우이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가족들의 부재는 이 여성에게는 정서적, 경제적 도움을 줄 지원처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여성은 아웃리치를 통해 거리에서 발견된 경우이다. 남자들과 여인숙 등지에서 지내다 남자들이 떠난 후에는 결국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거리에서 지냈고 그 이후에는 시설에서 오게 되었다.

나이는 73세이고 아웃리치를 통해 입소하게 되었는데 여태까지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노숙을 하거나 아는 사람 집에서 지냈다고 하였다. 일곱 명의 아들이 있는데 현재는 4명만 살아 있고 셋째 아들을 찾는 중이라고 하였다. 첫째 며느리와 남편(입소자 남편)이 관계를 갖는 것을 셋째 아들이 목격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 남편은 사라지고 첫째며느리는 첫째아들이 내 쫓았었는데 나중에 다시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아들은 첫째 애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었으나 지금은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다며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법적으로 해결 보려다 잘못되어 돈마저 다 날리고 지금은 갈 곳도 없이 이렇게 지낸다며 00에서도 지낸 적이 있고 한데 쉼터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여 일단 시설에 머무르게 하였다. (박순

려, 73세)

이 여성은 가정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어 노숙을 하게 된 경우이다. 가정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비윤리적인 상황을 목격한 아들이 행방불명되었고 그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 여성의 사례이다. 처음 초기 상담시에는 언급을 안했지만 최근 상담 시 밝힌 사연이다. 현재는 주거지원을 받아 고시원으로 독립해 살고 있으며 일을 못하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재 상담을 해야 하는 상태이다.

000 상담소를 통해 온 여성으로 한국에 있을 때 결혼 후 자녀 셋을 두고 이혼했었고 82년 51세 나이로 당신 도미하여 살다가 비자 연장 후 만료 되어 불법으로 눌러 살았는데 윤즌 당속이 심해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싶었지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누가 한국에 집을 마련해 준다고 해서 한국 온 지 열흘 되었고 나와서 그 복잡을 보아야 하는데 미국에서 꽃동네를 소개해 주어 갔었지만 복잡을 볼 수가 없어서 익주일 만에 오늘 나왔다고 하였다. 함께 동행 한 000상담소 남자 실무자에게 시설의 특성상 낮에 나가야 하고 연세가 있으셔서 안정적인 곳에 가셔야 하는데 연계할 만한 쉼터가 쉽지 않다 하니 내일 000상담소에 의뢰한 00구청과 통화하여 다시 연계하기로 하였다. (신숙진, 76세)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자녀를 두고 홀로 미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거기서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국으로 나왔지만 막상 귀국을 하니 도움 받을 만한 곳이 없어 노숙을 하게 된 여성이다. 자녀는 찾았지만 경제적으로 이 여성을 부양할 능력이 안 되는 듯 보였고 누군가가 집을 마련해 주기로는 했다지만 그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4) 정신장애를 갖은 여성의 고된 삶

원인별로 나눈 노숙원인들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정신장애 및 질환에 대한 부분이다. 좋은집에 입소한 여성들 중에는 정신질환을 비롯해 우울증과 같은 증세를 보이는 여성들도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면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연계할 수도 없고(강제입원) 받아주는 쉼터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현재 나이는 43세이고 00경찰지구대의 안내로 입소하게 되었다. 경찰서에 들어와 뭐든 일을 시켜달라고 졸랐다고 하였고, 결혼해 대구에서 살다가 9년 전 이혼했고 아들 2명은 남편이 데리고 있다고 하였다. 서울로 올라와 식당 서빙 일을 하며 지내던 중, 2003년 9월에 누군가가 말을 하고 뉴스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몸이 꼼짝할 수 없고 갑자기 잠에 빠져버리곤 해 취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00동 사는 큰언니네 얹혀 지내다가 언니가 미친 소리 한다며 혼을 내 사이가 안 좋아져 집을 나오게 되었고 15일 전부터 동대문 은행지급기에서 잠을 자고 컵라면 먹으며 지내다가 돈이 떨어져 5일 동안 굶었고 취업할 계획이며 쉼터입소를 요청하였다. (허은식, 43세)

이 여성은 안기부의 누군가가 본인을 쫓아오고 레이저를 쏘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서 믿지도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끼는 여성이다.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몸이 지치고 상태가 안 좋아 일도 못 하겠다 하였다. 이렇듯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일하기가 너무 어렵다. 가끔씩이라도 드러나는 증세는 주인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퇴직을 요구하며 아니면 본인이 일하기가 힘들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 뿐 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결국은 소외당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싸움이 잦아져 집을 나오게 된다. 갈 곳이 없는 이러한 여성들은 결국 노숙을 하게 되

는 것이다.

> 서울시 00정신보건센터에서 의뢰되어 입소하게 되었다. 2002년 6월에 청량리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였고 청량리병원에는 3번째 입원했었다. 이전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부녀보호소에 머물다 다시 청량리병원에 입원했던 것이고 예전에 6개월 정도 동거한 경험이 있고, 그때 아이가 생겨 유산시킨 적이 있다고 하였다.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원터입소를 희망하여 원터에 가시기 전에 며칠 동안 마음 편히 계시라고 하였다. 의사소통이 괜찮은 편이지만 집중력이 떨어져서 곧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얘기할 때 눈을 맞추지 않고 시선을 아래쪽에 두는 특징을 보였다. (이정희, 43세)

이 여성 또한 시선처리가 어색할 뿐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안정적인 거처가 없어 정신병원과 부녀보호시설을 전전했으며 결국 병원에서 퇴원 후 다시 노숙인 이용시설에 오게 된 것이다. 성지식이 없는 여성 노숙인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유산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분별한 남성들과의 잠자리는 성병 및 임신이라는 여성이 혼자 짊어지기 힘든 결과를 초래한다.

(5) 힘든 삶의 불청객

사건과 사고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경제적 파산, 교통사고 등 모든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노숙을 하는 경우고 이 부분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적인 빈곤과 큰 연관이 있다.

나이는 70세이고 시먼 안내를 받아 입소한 여성이다. 고아 출신으로 같은 고아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남편이 마작을 하여 돈을 다 날리고 혼자 서울로 가서 자살한 뒤, 연이어 어린 아들도 사망했다고 하였다. 식당 등 숙식이 가능한 직장에서 줄곧 일했는데, 2개월 전 직장을 잃고 서울역 등에서 지냈고 넘어져 찰과상을 입은 데가 곪아 진물이 나고 있었다. 양부모가 있기는 했으나 그 양부모의 친아들이 못되게 굴어 찾아가기 싫고 처근에는 한 번도 안 갔다고 하였다. 그 양부모가 호적을 만들어 주지 않아 무호적 상태고 그로 인해 일자리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으며 한번은 어떤 사람이 호적을 만들어준다고 백 만원을 요구해 주었다가 사기를 당해 돈 마자 날린 적도 있다고 하였다. (박경애, 70세)

고아로 지내다 양부모 밑에 들어가 살았는데 호적을 만들어 주지 않아 답답한 적이 많았다고 하였다. 남편과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 여성에게 큰 충격이였을 것이다. 호적을 만들려다 사기를 당한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 여성의 힘들었던 과거의 생활을 보여준다. 남편과 연이은 아들의 죽음은 이 여성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지만 강한 의지력으로 여기저기 안 해본 일 없이 살다 결국은 직장을 잃어 노숙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다쳐 시민의 도움으로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이 여성은 66세이고 000지구대에서 모시고 왔다. 울산에서 서울에 있는 아는 사람 만나러 왔는데 늦게 도착해서인지 상전이 문을 닫아 못 만나고 연락도 안 되더라고 하며 여비를 여유 있게 챙겨오지 못해 잠자리 마련이 힘들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였다. 내일 아는 사람 만나서 볼일보고 집에 내려갈 것이니 하루만 신세를 지겠다고 했다. (박춘자, 66세)

이 여성은 당장 집에 내려갈 차비가 여의치 않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입소한 사례로 이렇게 급한 사정으로 하루 밤을 지낼 곳이 없는 여성들도

여성노숙인 일일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상담을 중심으로 유형별 원인에 따른 사례를 모아보았다. 위의 사례들은 노숙의 원인이 어떤 한 가지 원인이라기보다 가정폭력, 경제적 원인, 가족해체, 정신질환 등 복합적이라는 점이다. 어려서 가족과 해체되었거나 아니면 사건·사고로, 또는 남편과의 헤어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정신질환으로 집에서 나오게 되면서 자연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결국은 노숙을 하게 된다. 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알코올중독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악순환이 반복돼 결국 최악의 상황인 노숙 직전의 위험까지 오게 되는 것이다. 입소자 중에는 귀가를 하거나 돈을 모아 독립해 방을 얻는 경우도 있으나 그 반면 다시 노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노숙을 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 실무진의 힘으로 역부족인 정신질환자나 노숙생활이 몸에 벤 여성들에게 사후에 대한 안전한 조치를 못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Ⅳ. 여성노숙에 대한 예방책 및 서비스

1. 여성노숙인에 대한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여성은 경제적 문제, 가정문제, 건강문제, 사회적 지지망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종교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여성쉼터 등에서 생활하면서 노숙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여성노숙인들 중 서비스가 시급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노숙을 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노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노숙의 결과로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시설 자체가 많지 않고, 일반 쉼터로의 입소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노숙상태가 고령까지 지속되거나 가족으로부터 유기됨으로써 노숙을 하게 되는 노인여성이 많은데 현재는 이러한 여성노인을 보호할 생활시설 자체가 부족하고 시설기준이 부적합한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쉼터들은 정신, 신체장애를 가진 여성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여성들의 입소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입소제한은 결과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만든다(김수현, 2001).

이러한 복지시설은 인력의 부족, 재정적 문제, 행정지원의 문제, 입소자 관리의 문제, 기관들과의 미비한 네크워크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시설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시설의 추가공급보다는 기존 시설들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의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노숙에 대한 예방

여성노숙에 대한 예방으로는 첫째, 빈곤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개입, 지역사회 응급주거와 네트워크의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 사회의 지지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확보해야 될 필수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는 인구에 비례하여 확보되어야 할 무료급식소, 응급보호센터, 쉼터 등을 정하는 방식이다(김수현, 2001). 다행히 몇몇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거리 여성노숙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의 고민과 관심 속에서 노숙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활동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남기철, 2000).

노숙인은 가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노숙인들은 역이나 공원에서 주로 생활하는 이유는 구걸이나 음식물을 구하기 쉽고 관련 정보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도 큰 이유이다. 다시 말해 '이웃의 배척'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웃의 가정문제나 심각한 생활문제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한 체계의 확립은 일종의 종합서비스로서 상담, 직장알선, 복지대책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김수현, 1998).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 복지법[7] 등의 포괄범위 확대 등

---

7)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사회안전망 정비이다. 현재와 같은 극심한 경제침체와 더불어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해, 구조조정과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은 사회적 문제인 노숙현상에 있어 중요한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차적인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모·부자 복지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듯 국민의 경제적 빈곤과 가정의 불안정은 노숙과 서로 뗄 수 없는 유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관한 법제정 등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복지 안전망의 구축이 노숙인 예방을 위한 장기적 대책인 것이다. 노숙인은 경제적인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점점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면서 거리로 나가게 되므로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기존 여성, 노인, 정신장애 관련 보호서비스와 시설 인프라의 확충이다. 정신장애가 주원인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전문 정신치료 서비스가 필요하고, 다음은 사회적 서비스로 심리상담,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김수현, 2001). 그리고 만성적 정신장애를 갖은 여성이 완전하게 치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사회 내의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로의 원활한 접근 및 외래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을 통해 정신질환의 안정적 관리와 주거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민소영, 2003).

라.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모·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2.12.18]

3. 서비스 보호대책인 아웃리치와 여성 드롭인센터(drop-in-center)

1) 아웃리치의 정의

아웃리치(outreach)란 서비스 제공자가 노숙인들에게 서비스나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아웃리치가 아니면 노숙인들은 서비스나 정보를 얻기 힘들거나 유용한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웃리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Fantasia & Isserman, 1994). 즉 아웃리치는 클라이언트가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필요에 처한 개인들에게 도움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상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많이 모여 있는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노숙인복지회 역, 2000. 6).

아웃리치는 노숙인에게 필요한 의료, 정신건강, 요양, 사회복지(social welfare,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혜택 등을 이른다),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최초의 결정적 단계이다.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는 노숙인, 서비스로부터 배제된 노숙인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웃리치는 결과라기보다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친근감을 형성하고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와 연계에 초점을 둔다. 아웃리치는 관계 형성의 첫 과정인 것이다(노숙인복지회 역, 1998).

아웃리치는 안에서 상담자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예방책이 아닌 밖으로 직접 나가 노숙인을 만나는 프로그램인 동시에 정보가 없는 노숙인들에게 정보를 주고 또한 그들만의 정보를 얻기도 한다. 어디에 노숙인들의 밀집지역

이 있고 어디에서 급식을 하며 노숙인들 안에서의 일들의 자세히 알아가는 과정이다. 또한 그들에게 닥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 겨울에 두꺼운 침낭을 제공한다거나 여성노숙인의 경우는 여성용품인 생리대의 지원 등을 해주며 그들만의 힘든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숙인들과 친밀해져야한다는 것은 기본이지만 친밀해지기까지의 기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역, 영등포역, 종묘공원 등을 대표적 아웃리치 활동장소로 꼽을 수 있다. 이런 지역은 무료급식과 무료진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는 동시에 기존 활동을 진행하는 팀들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듯 아웃리치는 노숙인의 발견과 함께 그들에게 정보를 주며 앞으로의 좀 더 나은 삶의 지표를 제공해 주는 없어서는 안 될 노숙인 대책의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본다. 아웃리치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있다. 당장 길에 나와 갈 곳을 잃었다면 하루 밤이라도 응급으로 잘 곳을 안내해 준다거나, 아파서 치료를 요하는 여성들에게 병원안내를 해야 할 경우 이렇게 긴급하고 시간을 다투는 노숙인들의 욕구를 파악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일단 안정을 취하고 또 그에 맞는 다른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안전, 위기개입, 의료기관으로 의뢰, 의복, 음식과 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번째의 목적과 비슷하지만 위의 사항보다는 다음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옷, 음식, 잘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세 번째로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예민하고 공격적인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채 도움을 준다고 개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안타까움으로 당장 무

언가를 해보려는 것보다 일단 친밀감을 형성한 뒤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렇게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도움을 주기가 더 쉽고 아웃리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웃리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지원체계와 연결되도록 돕는 것이다. 귀향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절차를 걸쳐 귀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쉼터입소를 원하면 그에 맞는 적절한 쉼터를 연계한다거나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에 맞는 치료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지원체계가 적절한지를 신속하게 파악해 그에 맞는 적절한 체계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아웃리치의 목적은 노숙인들의 위험한 환경과 상황으로부터의 보호와 그에 맞는 적절한 연계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노숙인복지연구회, 1998)

2) 중간역할의 여성 드롭인센터(drop-in-center)의 필요성과 역할

여성이 노숙을 하게 되는 계기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설의 부족도 노숙을 하게 되는 이유에 속한 다고 볼 수 있다. 막상 집을 나오면 갈 곳이 없어 막막해 하는데 그런 경우 보통 서울역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게 된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왔다하여도 폭행을 당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병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가정폭력쉼터에 입소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정신질환이라도 있으면 어떠한 쉼터도 입소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바로 입소할 수 있는 쉼터가 없게 되어 여성드롭인 센터로 오게 된다. 여성드롭인 센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용경로로 입소하게 되는데 이는 쉼터연계라든지 또는 귀향 등 다음단계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1) 드롭인센터의 필요성

첫째, 여성노숙인들의 응급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 여성들이 거리에서 생활 하다보면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경우가 많은데 한겨울의 동사, 남성노숙인들의 성폭력, 폭행 등 많은 위험요소들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응급보호시설인 여성 드롭인 센터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노숙인 쉼터 보호의 한계 때문이다. 여성 노숙인의 경우 정신질환 등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은 갈 만한 쉼터가 없고 쉼터에 들어갔다 해도 그곳 생활의 불편함으로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되어 거리노숙을 반복하게 된다. 이럴 경우 드롭인 센터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의 응급보호시설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여성드롭인 센터는 위에 언급한 응급보호뿐만 아니라 여성노숙인들이 쉼터로 가기 전 분류, 사정을 위한 중간단계의 역할을 별도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드롭인센터의 역할

여성드롭인 센터의 역할은 다양하고 중요하다. 여성노숙인들은 수가 적다는 이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동사의 위험은 물론 폭력과 성폭력에의 노출, 질환과 임신 등 이 모든 문제들에 거의 무방비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숙지역 가까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여성드롭인 센터는 여성노숙인들에게 최소한 인간의 생명과 안전, 건강유지에 필요한 보호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최소한의 필수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샤워, 세탁, 생활용품지급, 식사, 잠자리, 공공근로 등을 제공함으로서 사회적 인간으로서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소외, 자존감을 향상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 드롭인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통해 여성노숙인을 위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노숙만성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거리사람들, 2003).

(3) 기타

아웃리치와 여성 드롭인센터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서비스와 연결함으로서 더욱 강화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숙식제공을 위주로 한 기존의 서비스 외에도 치료의 기능, 응급쉼터, 단기 쉼터, 장기쉼터, 자유이용시설, 재활 프로그램 제공, 주거지원 등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어야 한다. 현재 서비스의 한계를 보다 개선하여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여성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을 위한 장애인 시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의 요양시설 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관계형성으로 여성노숙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이 안에서 드롭인 센터를 통한 응급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 체계로 그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Ⅴ. 결 론

1997년 IMF이후 대량실업과 함께 사회문제로 나타난 노숙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은 점점 늘고 있다. 여성노숙인의 수 또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여성노숙인의 수가 증가하고 또 그에 따른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소수의 약자라는 이유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그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사회 안전망의 부재상태, 경제적 빈곤문제와 더불어 여성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여성노숙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현재 노숙을 하고 있거나 노숙 위기에 놓여있는 여성들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 문제가 단지 노숙의 문제이기 이전에 여성 빈곤의 심화, 여성의 사회적 소외 등과 같은 여성의 문제임을 밝힌다. 또한 여성노숙인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여성노숙 현황과 여성노숙인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여성 노숙의 노숙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그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이 있는가 등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의 거리노숙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드롭인 센터(여성노숙인 전용일일시설)에 입소한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빌어 드러냈고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밝히고자 초기상담일지를 통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여성 드롭인센터(여성 노숙인 전용일일시설)인 '우리들의 좋은집'에 입소한 여성 중 14명을 노숙 원인별로 나누어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여성노숙의 원인에 대한 관점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요인인 빈

곤과 관련해 경제구조, 주거, 사회안전망에 관련된 복지지원의 취약성과 개인적 요인인 실직, 정신질환, 가족문제, 사회적 관계의 단절, 개인의 무능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연관되어 악순환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회구조적 요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노숙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다.

위와 같은 요인으로 노숙을 하게 된 여성들에게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여성노숙인들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크게 자녀동반, 사회적인 지지망의 부재, 정신질환, 숨겨진 여성노숙인으로 나눌 수 있고 대부분의 여성노숙인들은 거주지가 불안정하며, 자존감이 낮고, 근로능력이 취약하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가족・이웃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거나 해체된 상태로 신용불량자가 많은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였다.

현재 노숙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여성노숙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문제이다. 이러한 여성노숙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첫째, 빈곤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개입, 지역사회 응급주거와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두 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등의 포괄적인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존여성, 노인, 정신장애 관련 보호서비스와 시설 인프라의 확충이다. 이와 같이 사전에 노숙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것은 노숙 종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미 노숙위기에 접어든 여성들에게는 체계적인 아웃리치 서비스와 함께 여성노숙인 일일보호시설인 여성 드롭인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함의는 첫째, 여성주의 시각으로 여성노숙의 문제를 다루었다. 남성노숙인과는 다르게 여성은 가정폭력이라는 피해자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가부장적 요소들이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또한 여성노숙인들은 약한 여성이라는 점과 남성노숙인에 비해 소수라

는 이유로 그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여성노숙인 전용일일시설의 상담사례를 통해, 여성노숙인들의 고된 삶을 비추어 봄으로써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노숙생활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러한 거리생활을 드러냄으로써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인가를 인식하게 해 주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여성노숙인 전용일일시설인 '우리들의 좋은집' 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운영되는 여성노숙인 시설이며 노숙위기나 노숙상황에서 일차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응급센터이다. 이러한 시설의 정확한 자료는 현시점의 여성노숙인의 실태와 파악에 있어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다양한 현황 파악에 대한 자료들은 거리여성노숙 문제의 원인적 요소와 여러 특성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실무진으로써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이 연구는 여성노숙인에 대한 문제를 재조명하고 또 다른 여성노숙인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연구에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이 연구에 쓰인 상담사례자료들은 여성노숙이라는 가장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적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노숙인들의 현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그 위험이 초래한 여러 부정적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줘 여성정책을 펴는데 있어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네 번째, 남성노숙인에 관한 연구들은 많은 반면 여성노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있다하여도 지금의 노숙 상황과는 다른 부분이 있고 그 통계 또한 오래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조사가 필요했다. 이 연구는 현시점에서 여성노숙인의 수와 노숙원인, 노숙현황 등을 재조사함으로써 이 후 여성노숙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초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고 그들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히는데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성노숙인 쉼터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유형의 여성노숙인들이 과밀하게 밀집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동생활을 함으로 인해 그들의 서로 다른 욕구나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사례별' 특성을 감안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 노숙의 원인 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로 노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여성들은 보통 자녀를 동반한 채 집을 나오게 되므로 자녀를 동반한 경우 단신여성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두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욕구가 다르며 그 욕구와 특성에 맞는 쉼터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쉼터는 자녀동반을 한 경우와 단신여성을 구분하여 자녀동반의 경우는, 가족단위로 독립된 방을 제공하여야 하고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여성들도 일반여성과 함께 생활하는데 이는 입소자들 간의 여러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쉼터에서 입소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형별로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 또한 쉼터는 유형별로 전문화와 특성화하여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장기 시설 수급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가정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으로는 상담 및 지원 체계의 강화이다. 가정폭력 상담소, 응급보호시설, 응급치료 체계를 더욱 확충하여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기의 여성들이 쉽게 보호시설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와 함께 더욱 강력한 법제도화가 마련되어야 하고 사회복지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기능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자녀동반 여성의 경우, 여성정책 차원에서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와 접근이 필요하다.

정신적인 문제나 알코올 중독으로 노숙을 하게 된 경우는 알코올 중독 및 정신장애 노숙인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은 노숙의 주요한 원인이자 결과이다. 이러한 치료를 요하는 여성노숙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담당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정신질환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의 부적응 현상까지 상담과 치료의 범위에 넣어야 한다. 또한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심리건강, 정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알코올 중독은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의 건립, 확충 및 무상치료가 시급하고 관련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심리상담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정신질환이 심할 경우 최대한 빨리 입원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조치가 시급하다. 병식이 없어 서울역 등을 배회하는 여성노숙인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입원 조치에 있어서도 행정처리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정부의 대대적인 개입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성들이 가는 병원은 청량리 정신병원 한 곳 정도로 이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고 정신질환의 경우 입소 가능한 쉼터도 거의 없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 여성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해 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한 만성질환 등 자립적으로 주거와 직업을 마련하기 어려운 단신여성의 경우에는 재활치료 시스템과 공동작업장을 갖춘 공동주거의 형태로 치료와 자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적인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노숙을 하게 되는 여성의 경우를 보면, 일단 빈곤에 진입한 여성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운 일임을 실감하게 된다. 빈곤에 진입한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꿈꾸는 빈곤탈출의 경로는 노동시장 안으로의 참여이다. 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적어 취업이 힘들다. 여성노숙인 대부분은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근로의욕과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여성들과 면접 시 많은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할기회이다. 이에 여성노숙인을 위한 단계별 일자리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 2006년 2월부터 서울시에서는 ‘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또 실제적으로 일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여성노숙인들은 식당일이나 청소 등의 단순하고 단기적인 일에 종사함으로써 항상 불 안정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계별 일자리 개척과 다양한 일자리 확보 등이 시급하다. 여성노숙인과 관련된 정부 등의 노동 지원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하며 공공근로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운영이나 연속성, 정보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저임금이나 실업으로 인한 빈곤 때문에 여성들은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구조적 요인이라 볼 수 있는 저렴한 주택부족은 주택의 공급과 확보,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을 요구한다. 단칸방과 같은 저렴한 주택을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극빈여성층들이 싼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절대빈곤 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긴급급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절대빈곤 상황으로 인한 노숙을 막아야 할 것이다.

여성노숙의 원인 중에 가족관계의 해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가정내의 폭력이나 배우자의 가출 등의 원인에는 부양자의 경제적 무능과 좌절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므로 자녀수당제도 주거 수당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가족관계를 유지시킬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단위의 상담과 일시적인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극심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현대의 가족들은 많은 시련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급증하는 이혼 등으로 인해 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사후 문제해결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가족정책의 효과성에 한계를 갖게 만든다. 다양한 유형의 가족문제는 사회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요원인 중의 하나는 가족 구조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이다. 가족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혼 및 별거, 가출 등

으로 인해 비정형적인 가족이 출현하고 있음은 가족의 특정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족해체를 대비한 정책의 기본은 해체가족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예방대책에 초점을 두고 예방책을 기초로 해체가족의 문제점을 위한 세부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가족관계상의 확립, 홍보계몽이 강화되어야 하며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관련된 교육이 다각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갈등의 완화와 가족문제의 위한 전문상담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급증하는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 협의이혼 절차를 강화 하는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가 사회 안전망의 재 구실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서는 위기사례에 대한 조기개입도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가정폭력 상담원 등의 위기상황 개입 활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관과 같은 지역사회 복지센터의 가족복지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족정책의 기본방향은 가족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사후 문제해결 차원에서 사전 예방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노숙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여성노숙인의 귀향, 다른 기관으로의 연계, 병원입원 등 사후처리에 대한 통계를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거리로 보내지는 일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마련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여성 노숙인의 안정적인 정책이 현실화되어 이 같은 연구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연계에 대한 자료들은 여성노숙인 복지정책에 효율적이고 쉽게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 지금까지는 여성노숙에 관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노숙 연

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여성노숙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연구 자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각적인 많은 정보들로 여성노숙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여성노숙의 문제를 좀 더 여성적 시각으로 다룬 연구들이 필요하다.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노숙의 현실에 들어올 수 있기에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이며 나와는 딴 세계의 일이라고 치부할 문제만은 아니다. 이전에 선행연구들은 거의 사회복지학 측면에서 문제를 다루었고 여성적 시각의 연구가 드물다. 여성노숙은 남성노숙과는 다른 여성만의 고유한 성격으로부터 시작된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여성이 거리노숙에 유입되는 과정, 원인, 악순환의 반복, 거리생활의 만성화, 이탈의 과정 등이 차 후 심층적으로 연구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김유자(2003), 『노숙인의 알코올중독문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명환(2005), 『가정폭력의 현실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용희(2006),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 연구: 거리노숙의 경험이 있는 여성노숙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진미(2003), 『거리노숙 만성화 요인 연구: 서울지역 거리노숙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광례(2001), 『여성노숙자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혜성(1999), 『노숙자시설 입소자의 거리숙박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위정희(2002), 『Homeless 여성의 현황과 개인특성에 관한 연구: 여성노숙자 쉼터 입소여성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원(2005),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태도』,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남기철(2000), 『노숙기간에 따른 심리사회적 외상이 보호시설 퇴소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이호영(2002), 『쉼터 노숙인의 이동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현철(2002), 『노숙인과 부랑인의 심리사회적 기능과 특성 비교』,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손현주(2002), 『노숙자 재활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윤순(2002), 『정신질환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아침을여는집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국(2002), 『노숙인 쉼터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문재(2001), 『한국 노숙자 복지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유경(2001), 『노숙자에 대한 지역사회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현식(1999),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참여 방안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육성철(1999), 『노숙자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현철(2002), 『노숙인과 부랑인의 심리사회적 기능과 특성 비교』,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경원(2005), 『노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태영(2005), 『노숙인 쉼터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지역 노숙인 쉼터 이용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정주(2004), 『노숙인의 삶의 질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재수(2003), 『노숙인 자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숙인복지회(2000). 『노숙인 복지 연구』.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노숙인복지연구회.

서정화(2005), “여성노숙인을 아십니까? : 여성노숙인의 현실과 제도적 지원방안모색”,『여성노숙인의 존재와 삶』, 15~36쪽.

김현미, 최연희(2001), “노숙자의 사회심리적 특성”,『경산대학교 보건복지연구소 보건복지연구 제6집』, 139~149쪽.

김수현(2001), 『서울시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위한 자활지원 방안: 성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수현(2001), 『서울시 홈리스 여성 실태와 대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수현외(2002), 『서울시 중장기 노숙자 정책 연구』

김승권(2002. 6), 『가족해체의 발생원인 및 규모추정과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보건복지부・서울시(2000), 『쪽방지역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정책개발』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2000), 『서울시 노숙자 지원사업 백서:1998-2000』

시정개발연구원(2002a), 『서울시 일용노동자의 삶과 정책』

Elliot Liebow(2003), 엄신자 역, 『우리를 세상에 알려주세요(Tell Them Who I Am-The Lives of Homeless WoMen』, 서울: 인간과 복지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1998), 『노숙의 원인과 양상』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2002), 『노숙인복지, 그 실천을 위해』, 노숙인복지연구회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2005), 『2004년 사업백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2002~2003), 『거리사람들2003』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2000), 『서울시 노숙자 지원사업 백서: 1998-2000』
위정희 외 4인(2001), “여성·가족 재활프로그램”,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노숙자자활사업평가위원회·보건복지부,『노숙자자활을 위한 실무 매뉴얼』
국립국어연구원(2003), 『표준어국어대사전』, 두산동아.

2. 외국문헌

Anderson, I.(1997), “Homeless and Social Exclusion: The Situation of Single Homeless People in Great Britain”, Huth, M. J. & Wright, T(ed),*International Critical Perspective on Homelessness*, Westport: Praeger Publishers.

Bassuk, E. L., Weinreb, L. F., Buckner, J. *C.*, Browne, A., Salomon, A., and Bassuk, S. S.(1996),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sheltered homeless and low-income housed mothers”, *Jama*, 276(8).

Brooks, M. G. & Buckner, J. *C.*(1996), “Work and welfare: Job histories, barriers to employment, and predictors of work among low-income single mother”, *Am J Orthopsychiatry*, 66(4).

*C*aton *C*. L., Shrout, P. E., Dominguez, B., Eagle, P. F., *O*pler, L. A., and *C*ournos, F.(1995), “Risk factors for homelessness among women with schizophrenia”, *Am J Public Health*, 85(8).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1996), *Homeless: Code of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London: HMSO.

Fitzpatrick, S., Kemp, P., and Klinker, S.(2000), Single Homelessness: An overview of research in Britain, Joseph Rowntree Foundation.

Huth, M. J. & Wright, T.(1997), (ed), *International Critical Perspectives on Homelessness*, Westport: Praeger Publishers.

Mullenix, M.(1999. 12), "Transitional services for homeless families", Welfare Information Network, *Issue Notes*, Vol. 3, No. 9.

Nation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1999), *Health Care and Homelessness.*

Pleace, N.(1995), *Housing Vulnerable Single Homeless People, Centre for Housing Policy,* University of York.

Robertson, M. J. & Winkleby, M. A.(1996), "Mental Health problems of homeless women and differences across subgroups", *Annu Rev Public Health,* 17.

Segal, B.(1991), *Homelessness and Drinking: A Study of a Street Population,* Binghamton: Haworth Press.

언론보도자료

경향신문, "여성노숙자 지원책 마련 시급" 2005. 2. 2

MBC TV 'PD수첩' 『집 없는 그녀, 각종 폭력에 무방비』여성노숙 실태 조명, 2004. 10. 12

뉴스웨이. "거리로 내몰린 여성노숙인 보호 시급" 여성노숙인, 가정폭력, 정

신・건강질환 등이 주요인. 2006. 6. 27.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Homeless Women and the Measures of Preventing Homelessness.

Song Soon Young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began with the curiosity towards causes of homelessness of women, which is indeed the worst situation a woman can be placed 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ighten the level of interest and understanding in homeless women by presenting the problem of neglect towards homeless women who are being ignored because of the sole reasons that they are weak although social changes have caused them to become homeless, and the rapidly growing number of homeless women are causing a number of other problems. Therefor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questions of current status of homeless women, what the characteristics are of homeless women, what the main causes are of homelessness of homeless women, and what could be some measures of preventing homelessness of women, were presented as questions of this study.

In order to reveal the causes and reasons for homeless women, information gathered through initial counseling at “Our Happy House”, a housing for homeless women where the researcher is currently employed, was used as the basis for a cases study by cause of homelessness. As participants of the study, 15 homeless women who are currently residing at the homeless housing in which the researcher is employed were selected for the case study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ducted through the selected homeless women to reveal the causes of homelessness and the social problems homelessness situation accompanie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frequent reason for women homelessness was found to be family violence. When referring to family violence many people only consider violence of the husband as the problem, but when according to study results, family violence is inclusive of all violence that take place within the family in addition to violence of the husband including verbal abuse, sexual abuse,and neglect. Women who have been victimized by such violence leave their homes; and as a result, they are placed at risk of becoming homeless.

Second, financial poverty, or having no money, is the direct cause of homelessnes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women are reduced to homeless women due to poverty resulting from low wages or unemployment. In addition, homeless women had strong desire to obtain employment but the problem is, there are no special solutions to resolve the problem of insufficient number of jobs available. Through the study, an important discovery was made that although women become homeless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the core reason of homeless is not due to a single reason but a combination of many factors such as family disruption, family

violence, and incidental accidents working together.

Third, one of the reasons for homelessness of women was found to be family disruption and breakage. With family disruption as the fundamental reason, the poor bond between family members in addition to weak family structure were also deeply related to life as a homeless. Unexpected death of spouse, divorce, separation, disappearance from home, and other forms of family disappearance not only makes women become helpless but they often become causes for a defenseless life in the streets for women.

Fourth, of all causes of homelessness for women, the most difficult and troublesome situation is when they are suffering from mental disorder or disease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y have already been suffering from such ailments prior to becoming homeless, but it was found that a large number of women who are homeless have received treatments for mental problems in the past or became homeless because of severe mental shock which caused other illnesses. Of these people, homeless women who are accompanied by their children are faced with problems that are even more serious. It can cause child abuse and neglect thus timely action is crucial. There are no resting places or hospitals where these women can find shelter. Because they are women who are not able to overcome the crisis of homelessness, social support and help from their surroundings is dire.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homeless women cannot be limited as mere homeless people, and that it needs to be addressed as a social problem of women rather than treating it as problems of each individual. Therefore, this study addresses the need for various types of protection

from aspects of social welfare, feminism, and in policies, and proposal of policies for support are as follows.

First, support for homeless women for prevention includes active intervention for needy families by local society, and establishment of social network and emergency housing. Also, comprehensive expansion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Welfare for Parents and Children Act, and other fine tuning of social safety network is important, and last, amplification of existing services and facility infrastructure for women, the elderly, and the mentally disabled is also critical.

Next expansion of out reach and drop in centers, and their functions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As much as causes for homelessness of women are diverse, their alternatives are as diverse. Homeless women can be classified by causes of homelessness. By taking the diversity of causes of homelessness, specialization of shelters by types is needed. In addition for homeless women with mental disorders or other mental ailments, the government must provide shelter or housing through establishment or expansion of nursing homes and hospitals. Also, in order to avoid homelessness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projects such as “Find a Job” and creation of jobs for homeless women are desperately needed. And the expansion of the emergency wage policy stipulated i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temporary welfare service system and counseling for women who were forced to leave home due to family violence needs to be prepared.